

월요광장

옥봉 백광훈 집안의 4문장



박석무
다산연구소 이사장·우석대 석좌교수

한 집안에서 시문으로 뛰어난 문장가 한 사람만 나와도 이름난 집안으로 대대로 칭송을 받기 마련이다. 한데, 호남의 장흥과 해남에 살던 옥봉(玉峯) 백광훈(白光勳:1537~1582) 집안에서는 4문장(文章)이 나왔으니 그 명성이 어마했는지 짐작이 간다. 더구나 옥봉의 아들로, '난중일기'에 이순신이란 큰 도움을 받았다고 나오는 송호(松湖) 백남진(白南振:1564~1618) 또한 진사(進士)로 시문에 뛰어난 문장가였으니, 실제로는 한 집안 5문장이 나온 집안이라고 말해도 될 것이다.

옥봉의 형인 기봉(岐峯) 백광홍(白光弘)은 '관서별곡'의 저자로 세상에서 큰 이름을 얻었던 분이고, 형인 백광안(白光顔)과 중형인 백광성(白光城) 또한 문장가여서 4문장인데, 아들까지 뛰어난 문장가였다면 그런 집안이 어디 쉽게

찾을 수 있는 집안이겠는가. 뭐라 해도 그 집안의 대표자는 역시 옥봉이었다. 옥봉은 장흥에서 태어나 일찍 해남의 옥천으로 옮겨 생활했으며, 진사과에 합격한 뒤에는 과거에 응시하지 않고 오직 자연과 함께 살면서 당시 '3당시인'으로 알려지고 조선 중기의 대표적 시인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중국 사신(使臣)들까지 옥봉의 시를 읽어 보고는 감탄을 금치 못해 중국의 문인들에게 널리 알려졌으니 이른바 천하의 시인의 지위를 얻게 되었다.

고죽(孤竹) 최경창(崔慶昌), 손곡(孫谷) 이달(李達)과 백광훈이 이른바 '3당시인'이다. 최경창 또한 영암 출신이고 이달은 호남 출신은 아니지만 많은 세월을 호남에서 지내면서 호남의 시인들과 어울려 지냈다. 따라서 조선 중기 조선의 시단은 역시 호남인들이 단연코 독점하고 있었음을 알게 된다. 송강 정철의 후손으로 대제학에 영의정을 지낸 장암(莊巖) 정호(鄭誦)는 옥봉의 '묘갈명'(墓誌銘)에서 옥봉의 삶과 시문학에 대하여 뛰어난 해설을 남겼다. 장암은 그 글에서 이렇게 말했다. "당시에 옥봉을 좋아했던 사람이자 옥봉이 좋아했던 사람으로 선배에는 이후백·노수산·임억령·양응정·박순 등이고 동년배로는 율곡

이이, 우계 성혼, 송강 정철, 의외건 등 당대의 여진 이들이었다." 대부분 호남인들인데 국중의 대문장가들과 서울의 몇몇 여진 이들과 가까이 지냈음을 알게 된다. 역시 호남의 학문과 문장의 영향으로 옥봉과 같은 대시인이 배출되었음을 보여 준다.

예전에 읽었던 '옥봉집'(玉峯集)을 근래에 책장에서 꺼내 읽어 보면서 호남에 이런 탁월한 시문학의 대가가 있었음을 다시 확인하게 되었다. 문집에는 세 편의 서문(序文)이 실려 있는데, 서경 유근(柳根), 월사 이정귀, 상촌 신희 등 조선을 대표하던 문장가 모두가 옥봉의 뛰어난 시문학에 극찬을 아끼지 않는 평가를 내렸었다.

최순 태생으로 해남으로 옮겨 살았던 친구인 천유(天維) 양산형을 기다리면서 지었다는 옥봉의 우정(友情) 어린 시 한 편을 읽어 본다. "비 개자 온 뜰에 새 이기 자라고/ 책상에 진흙 떨어는 어린 제비도 돌아왔네/ 한가로운 생각에 잠겨 있어 문득 슬퍼져/ 녹은 아래서 온종일 그대 기양 기다리네"

"기양천유"(寄梁天維)라는 제목의 시다. 뛰어난 감성과 탁월한 묘사력이 돋보인다. 아름답기 그지없는 초여름, 제비도 돌아왔건만 기다리는 친구는 오지

않는데, 녹은 아래서 온종일 그대만 기다린다는 시상! 이 한 편의 시만 읽어보아도 옥봉의 시 솜씨를 제대로 알 수 있다.

"3당시인"이자 '조선 8문장'의 한 분이라는 옥봉이건만, 오늘날 젊은이들 누가 옥봉을 제대로 기억하고 있는가. 우리 것 내 것이라면 무조건 외면하고, 옛 것, 오래된 것, 한문으로 된 시문은 무조건 밀리라는 세태에 분개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요즘의 젊은 문인들, 이런 멋지고 의미 깊은 옛날의 시를 받받고 익혀서 새로운 시를 창작하고 읊어 보면 어떨까.

'옥봉집'을 읽다 보면 옥봉과 교류했던 대부분의 학자나 문인들이 호남의 문장가들이었음을 알 수 있다. 백호 임제, 간재 김천일, 미암 유희준 등 호남의 문학과 학문의 분위기에서 벗어난 시문이 바로 옥봉의 시문학이었다. 이제 할 일은 하나다. 그 많은 호남 학자나 문인들의 학문과 시문학을 제대로 연구하고 현양하여 그때 조선 중기의 찬란했던 호남 이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들이 법고창신(法古創新)의 정신으로 돈독하게 옛날의 시문학에 대한 천착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호고(好古)해야만 창신(創新)이 가능하다.

社說

‘교과서 속 5·18’ 정권따라 오락가락해사야

옛그제 5·18민주화운동기록관에서는 '교과서 속 5·18을 말한다'라는 주제의 의미 있는 포럼이 열렸다. 현직 교사들이 참여한 이날 포럼에서는 초중고의 역사 교과서가 5·18민주화운동의 가치와 의의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있으며 서술 부족은 물론, 정권 성향에 따라 교과서 속 5·18 비중과 설명이 오락가락하고 있다는 사실이 지적됐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김경훈 광주교대 부설 초등학교 교사는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의 5·18 서술과 변화 과정' 발표에서 "초등 교과서에서 5·18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며 "2009 개정 교육과정을 거쳐 세 문장으로 5·18에 대해 배울 수 없다"고 밝혔다. 김 교사에 따르면 초등 교과서에서 5·18이 처음 서술된 시기는 김대중 정권 때인 제7차 교육과정(2000년 적용)이었는데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분량이 대폭 축소됐다는 것이다.

김보름 광주 문화중학교 사회 교사는 '중·고교 역사 교과서의 5·18 서술과 변화 과정'을 발표했는데 "대부분의 교과서에서는 계엄군의 무력 진압을 중심으로 서술하다 보니 5월 21일과 27일 사이 봉쇄된 광주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다루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노성태 국제고등학교 수석교사는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 등에서 난무하고 있는 외국에 대한 위협성을 강조했다.

이날 현직 교사들은 2020년 시행되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5·18 가치와 의의가 축소·왜곡되지 않도록 엄정한 서술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5월 정신의 소중한 역사와 뜻을 펴내고 왜곡하는 일이 여럿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공교육에서조차 5·18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미래 세대에 어떻게 5월 정신을 전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자라나는 세대에 올바른 역사를 전달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른 한파 소외 계층 '고독사' 더 이상 없도록

급속한 고령화와 핵가족화로 1인 가구가 크게 늘면서 가족이나 사회와 단절된 채 홀로 지내다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고독사(孤獨死)가 끊이지 않고 있다. 옛그제 광주시 서구 치평동의 한 원룸 화장실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로 혼자 살아온 A(68) 씨가 숨져 있는 것을 119 구급대원이 발견했다. 경찰은 시신의 부패 상태로 미뤄 숨진 지 수개월이 지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A씨는 평소 고혈압 등 지병을 앓아 온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도 시공사 소유의 원룸을 임대한 A씨는 월세를 두 달째 체납했고, 도시공사 측이 통장을 통해 그의 상태를 확인하면서 신고가 이뤄졌다고 한다.

이 같은 고독사는 울 들어 광주 서구에 서만 다섯 차례나 발생했다. 광주에서 홀로 사는 65세 이상 노인은 4만여 명, 전남은 12만여 명이나 된다. 전체 노인 서너 명 중 한 명이 홀로 사는 셈인데, 이로 인해 아무도 지켜보는데 이 없이 눈을 감겨

나 한참 뒤에야 시신이 발견되기도 한다. 과거 고독사는 이들 독거노인에 집중됐지만 최근에는 이혼·병퇴·실직 등으로 고립된 삶을 살다 홀로 임종을 맞이하는 40~50대 중장년층도 느는 추세다.

특히 요즘처럼 한파가 몰아치면 단독주택이나 가건물에서 생활하는 대다수 독거노인과 소외 계층은 경제적 여유가 없어 난방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버티는 일이 허다하다. 이들을 위한 사회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1인 가구를 통장·부녀회원·우편배달원 등과 연결해 수시로 안부를 살필으로써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최근 광주에서 고독사가 빈발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광주 지자체들도 전담과도 운영 중인 '고독사 지킴이단'의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주민들 역시 주변의 소외 계층에 늘 관심을 기울이는 공동체 의식을 발휘해야 하겠다.

법조칼럼

보이스 피싱 그리고 영화 '국가 부도의 날'



박철
법무법인 법가 변호사

요즘 특히 엄벌에 처해지는 범죄 유형을 꼽자면 음주 운전, 성폭력, 보이스 피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들 범죄 중 '보이스 피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면 우선 주범들은 중국 등 해외에 본거지를 두고 불법적으로 얻은 개인 정보를 활용해 범죄 대상을 물색하고 피해자들에게 작업을 합니다. 주범들은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을 대표 통장을 대여해 주거나, 돈을 대신 받아서 자신들의 통장으로 입금해줄 수급 역할을 할 공범들을 인터넷 등에 고수익 아르바이트 모집인 것으로 꾸며 공개적으로 모집합니다. 급전이 필요하거나, 생활이 어려운 이들 중 위와 같은 주범들의 유혹에 빠지기 쉬운 20대 초반의 학생들이나 사회 물정을 모르는 이들은 단순히 통장만 빌려준 뒤 돈만 받아서 입금해 주

고 높은 일당을 받다가 뭔가 이상함을 느낀다 그 때야 주범들은 보이스 피싱임을 당당히 밝히고 계속 일을 해주지 않으면 수사 기관등에 현자 공범들의 정보를 알리겠다고 협박해서 계속 일을 하도록 종용합니다.

범행이 발각되면 해외 주범들은 체포가 어렵고 결국 현지 공범들이 불합하게 됩니다. 현지 공범들은 범죄 행위로 인해 자신이 실제 얻은 금원은 미미함에도 불구하고 전체 범죄 금원에 대한 공범으로서 책임을 져야 하고, 강하게 처벌받기 때문에 합의에 나서게 됩니다. 이 공범들은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생활비, 학자금 이 부족할 나이 어린 학생들이나 무직의 젊은이들이 대부분이므로 뒤늦게 사실을 알게 된 부모나 친척들은 역시 어려운 경제 사정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살리기 위해 주변에서 거금을 빌려 합의에 나섭니다. 그나마 금원을 변동할 여지가 없는 가정은 자포자기 상태가 됩니다.

합의에 나선다고 해도 한 번 보이스 피싱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은 검찰, 경찰 등의 수사 기관을 통해 공범들의 합의의사를 전달받고서도 이를 또 다른 보이스 피싱이 아닌가 해서 믿지 못하고 합의를 위해 필요한 전화 번호 등 개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어렵사리 합의에 이르러도 양형 사유에 감안될 뿐 앞길에 구만리 어린 학생들의 앞날에는 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히게 됩니다. 이들이 죄 값을 치르고 출소한 후, 또는 집행유예 등의 선처를 받아 형이 확정된 후, 사회의 일원으로 새 출발을 할 수 있을지, 사회는 이들을 편견 없이 받아 줄 수 있을지 사실 걱정스럽습니다.

며칠 전 영화 국가 부도의 날을 봤습니다. IMF 구제 금융을 받은 시기 대학생이었던 필자는 당시 겪었던 개인적인 어려움들을 떠올리는 한편, 여러 가지 생각과 감정이 교차함을 느꼈습니다. 당시의 금융 위기, 경제 위기를 모두 위정자들의 탓으로만 돌리고자 하는 것은 지나치겠지요. 그러나 당시의 가난과 위기가 초래된 것은 우리 사회 전부의 책임이라는 것에는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대량의 부도도 수많은 중소기업의 사장들과 간부급 직원, 친인척들까지 경제범이 되고 말았고, 어려워진 경제 사정으로 생계형 범죄가 크게 늘었습니다. 경제 사정을 모르는 바 아니었지만 법원으로서 범죄가 성립하는 사건에 양형 이외에 그들을 구제할 수도 없었고, 어떤 경우에는 확정적인 범죄에 대한 고의가 없다 하

더라도 피해액이 커서 양산된 피해자 역시 많은 경우 어쩔 수 없이 더 큰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 정부의 지지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전히 정부의 통일, 외교, 국방, 복지, 지방 분권 정책 등을 지지하지만 도무지 회복되지 않는 경기를 보면 이 정권이 출범한 시간을 고려했을 때 이제는 더 이상 비판을 참기 어려워진 시점이 된 듯 합니다. 대기업의 성장에 비견될 만큼 많은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데 역량을 좀 더 집중해야 하지 않을까요. 세금으로 만들어지는 일자리가 아닌 실질적 고용을 증진시켜 청년 실업을 해결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제대로 혁파해서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보이스 피싱 범죄자들을 비호할 생각은 눈썹만큼도 없습니다. 다만 젊은 세대들이 위와 같은 범죄에 이용되고 있는 것을 그들만의 책임으로 모두 치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위정자들이 그들을 범계형 범죄가 크게 늘었습니다. 경제 사정을 모르는 바 아니었지만 법원으로서는 범죄가 성립하는 사건에 양형 이외에 그들을 구제할 수도 없었고, 어떤 경우에는 확정적인 범죄에 대한 고의가 없다 하

기고

통일의 그날을 위하여



조기승
전남도 천일염팀장

한 해가 저물어 간다. 해가 가면 어린이는 한 살을 더한다. 하지만 나이 든 사람은 한 해가 가면 한 해가 줄어든다. 나도 어느덧 해가 바뀌면 한 살이 빠져나가는 느낌이 든다. 앞으로 살아온 날보다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다. 시간은 흘러가는 물과 같아서 한 번 지나가면 되찾을 수가 없다. 순간순간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

며칠 전 산에 올랐다. 돌아오는 새싹과 꽃이 만발하는 봄날도, 왕성한 생명력을 간직한 여름도, 마음까지도 물들게 하는 단풍도 사라져 버린 계절은 삭막하

고 대지에는 낙엽이 많이 뒹굴고 있었다. 모든 것이 멈추어버린 것 같았다. 하지만 대지 아래서는 따뜻한 온기를 깊이 간직하고 다가올 봄날을 위해 활발히 움직이고 있을 것이다.

나이가 들수록 감정이 무뎠어져 마음이 움직이지 않지만, 떨어져 버린 낙엽의 잔상에서 떠오르는 것은 남북 관계의 변화였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발표했다. 두 정상은 공동 선언문에 서명을 한 후 발표에서 "한반도에 더는 전쟁은 없을 것. 평화의 시대가 열렸다"라며 냉전의 산물인 분단과 대결을 하루빨리 종식시키고 화해와 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열고 남북 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의지를 선언했다.

양 정상은 지난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평양에서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 이후 남북 당국 간 긴밀한 대화와 소통, 다

방면적 민간 교류와 협력이 진행되고,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획기적인 조치들이 취해지는 등 훌륭한 성과들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또 민족 자주와 민족 자결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남북 관계를 민족적 화해와 협력, 확고한 평화와 공동 번영을 위해 일관되고 지속해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으며, 현재의 남북 관계 발전을 통일로 이어갈 것을 바라는 온 겨레의 지향과 여망을 정책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인상적인 것은 민족의 영산 백두산을 양 정상이 함께 오르는 것이었다. 그동안 백두산을 우리 산이라고는 하였지만, 남의 나라 땅인 중국을 통해서만 가야 하는 것이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첫날 만찬사에서 "다정한 연인처럼 함께 손잡고 군사분계선을 오갔던 김 위원장과 나 사이에 신뢰와 우정이 있다"고 했으며, 김 위원장도 환영사에서 "남북 관계에 꽃 피는

봄날과 풍요한 결실만이 있도록 문 대통령과 제반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겠다"고 했다.

지금까지 남북 간에는 전과 다르게 많이 가까워진 느낌이다. 하지만 지금도 북미 간에는 상호 불신의 폭은 넓고 깊이는 심하다. 냉방과 온탕을 오가며 밀고 당기는 줄다리를 하고 있어서 때로는 비판도 낙관도 하기 힘든 실정이다.

비핵화, 남북 통일을 논하면서 항상 목표와 총론에서는 일치하지만,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의견 접근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것은 누구의 방법이 좋고 합리적이지 못해서가 아니라 지금까지 불신과 갈등이 낙엽처럼 쌓여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든다.

우리 생애 중에서 한 해가 신속하게 빠져나가고 있다. 나이 든 사람들은 한 살이 줄어든다. 시간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모두가 염원하는 비핵화와 통일의 그날을 위하여 매 순간 후회 없이 잘 살아야 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無等鼓

"대통령 각하, 임무는 마침내 완료됐습니다. 시계(視界) 양호(良好)한 삶의 영원한 안식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94세로 타계한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의 장례식이 지난 5일(현지시간) 워싱턴 대성당에서 열렸다. 장례식에는 그의 아들 조지 W 부시를 비롯한 가족과 지미 카터 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등이 참석했다. 젊은 시절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은 전투기 조종사로 태평양전쟁에 참전했다. 무공훈장을 받기도 했던 그는 1944년 임무를 수행하다 격추되는 아찔한 사고를 당했다. 다행히 표류 끝에 구조돼 훗날 미국의 제41대 대통령에 올랐다.

장례식에서는 조종사들의 용어인 '시계 양호'에 대해 그가 생전에 했던 말도 소개됐다. "태평양 전쟁 시절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이 하나 있다. 이륙 직전 긴장의 순간, 시계 양호라는 말이 들려오기를 학수고대했다. 그것은 완벽한 비행을 위한 전제 조건이었다. 이제 인생도 똑같이 고 평온하다."

시계 양호는 비행 중기상 상태가 좋다는 말이다. 군사 용어이지만 충분히 우리

삶에도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전장(戰場)에서처럼 인생에서도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막막한 날이 더러 있기 때문이다.

'광주형 일자리'에 급제동이 걸리면서 시계(視界)를 가늠하기 어려워졌다. '광주형 일자리'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이 안갯속이다. 경기는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비핵화 협상은 여전히 답보 상태다. 정쟁으로 날을 새우던 국회는 슬그머니 세비를 인상하는 법안까지 통과시켰다.

반면 그 어느 해보다 추울 거라는 울 거늘, 서민들은 말 그대로 '시계 제로'에 내몰려 있다.

부시 전 대통령은 생전에 지인의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젊은이, 앞으로의 비행에 시계 양호한 날이 가득하길 기원하네'라고 격려했다. 그의 말은 특정한 말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닐 뿐이다. 일자리가 없어 실의에 빠진 이들에게, 고단한 삶을 살아야 하는 장삼이사들에게 건네는 위로의 말일 것이다. 시계 양호와 시계 제로는 종이 한 장 차이다. 공공선과 기득권,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내일의 시계(視界)가 달라진다.

/박석천 문화부 부장 skypark@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649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220-0632	220-0652	기획관리국	227-9600
220-0663	220-0692	예향부	220-0692
220-0664	220-0693	디자인실	220-0536
220-0642	220-0697	체육부	220-0697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